



Feature articles

2008 육계산업 부문별 우수 업체 기자재

육계 자동화 시설의 선두업체



○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육계 사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계사건축도 고효율 단열재를 이용하여 외부와의 열을 차단해 혹서나 혹한으로부터 닭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판넬재료도 스티로폼으로 된 판넬에서 근년에 와서는 난연등급이 높은 우레탄 판넬을 사용할 만큼 건물의 단열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인유나이티드에서는 육계와 관련하여 계사건축뿐만 아니라 내부자동화 시설에 따른 급이시설, 낱플 급수기, 가스열풍기, 입기플랩, 36인치 크로스휠, 50인치 터널대형휠, 자동 원치시설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시설과 관련 음수투약기, 음수필터, 디지털수량계와 환경경보시스템(고온, 저온, 습도, 음수량, 정전, 외부침입을 경보로 휴대폰으로 알려주며,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다)을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개선된 육계를 사육할 수 있는 브로일러 케이지(3~6단)를 공급하고 있는데 브로일러 케이지는 깔짚을 깔 필요가 없으며 계분만 분리하여 외부로 운반할 수 있고 또한 출하시 벨트를 통해 이송되는 닭은 바로 출하차에 상차할 수 있게 설계돼 편리하다.

급이시설



브로일러 케이지



급이·급수기

외부에 사료빈을 설치하여 내부로 사료공급을 하면 보조호파에 채워진 사료가 계사내부에 있는 자동급이 라인에 의해 급이팬에 공급된다. 급이팬은 초생추부터

쉽게 사료를 접할 수 있게 높이가 65mm로 낮게 설계되어 충분히 섭취하며 일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이팬의 높이를 자동원치모타로 조정하여 사료가 급이팬 바닥을 통해서 닭의 습성에 따라 밑에서 쪼아 파내도록 하므로 사료허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대부분 닥플 급수기를 선호하며 항상 신선한 물을 닭이 짙어 섭취하도록 하는데, 닥플에서 누수되는 것은 없지만 닭부리와 닥플이 닿으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에 의해 바닥이 젖지 않도록 드립컵을 설치하여 바닥에 물이 떨어져 습도가 증가하거나 닭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배꼽닭, 즉 가슴수종이나 배수종이 생기지 않도록 피하여야 한다.

환기시설

환기시설로는 크로스 환기, 굴뚝환기, 터널환기로 구분하여 시스템에 따라 권장하는 방법이지만 서로 다르지만, 세인유나이티드에서는 하절기를 제외하고서는 크로스 환기에 의해 내부 환경조절을 피하고 있다.

입추를 하고서 가스 열풍기에 의해 급온을 하여 최적의 온도와 미세안개분무시설을 통해서 내부에 필요한 습도를 유지해 주어 저습도에 의한 병아리 털이나 피부가 건조하여 후반부 생육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또 일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환기를 위해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자동콘트롤에 의해 사육수수, 일령, 온도, 습도, 환기량의 계산에 따라 초단위로 크로스 환을 작동케 하는데 건물의 한쪽 벽면으로 길게 설치되어있는 입기플랩이 계사내부의 음압에 따라 개폐량을 조절하고 36인치 환은 초단위로 가동하게 되는데, 이때 절대 금기시하는 것으로는 속도조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창계사에서 속도조절에 의한 환기방법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내부의 높은 온도에 적응된 병아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낮은 속도로 부드럽게 들어와 병아리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도리어 호흡기 질환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크로스 환기 환을 일시에 초단위로 가동하여 일령별로 가동시간을 늘리지만 이것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전체의 크로스 환을 작동케하여 작동시간 동안 내부의 음압이 극도로 상승하는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속도조절은 하지 않지만, 크로스 환을 1대 또는 2대 그 이상으로 조 편성하여 분할 교대 가동함으로써 음압 급상승도 막고, 무창계사 내부 앞, 뒤의 전체 공기를 고르게 섞어서 적정 온도와 필요한 최소환기량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 문의 : (02)448-7188 